

정정당당 네티즌?

김 강 석 / SBS 편집부 차장

지난달 많은 파문 가운데서도 인터넷을 뒤흔든 사건은 단연 소리바다에 대한 서비스 폐쇄 결정이었다. 소리바다의 음악 파일 무료 서비스는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이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로 인해 MP3로 음악 파일을 다운 받아온 수많은 네티즌들은 이 결정에 반발하며 소송 당사자인 음반사들에 대해 음반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또 네티즌의 70% 정도가 소리바다의 유료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최근 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아울러 네티즌의 21.2%는 소리바다가 유료화될 경우 다른 무료 파일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마디로 그동안 공짜였던 음악 서비스가 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모든 정보나 콘텐츠가 실시간대로 공유되는 인터넷 세상에서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 가장 큰 반대 논리로 등장하고 있다. 일부 언론마저도 이들 네티즌의 강변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이런 논리나 이유들이야말로 인터넷 세상을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발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나오는 신곡마다 즉시에 공짜로 인터넷으로 유포가 돼버리면 누가 신곡을 작곡하고 새 노래를 제작하려 들겠는가. 음반 업계도 인터넷의 이런 황포를 견디다 못해 사생결단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임은 두말한 나위가 없다. 이미 2001년 3월 미국 연방법원은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 '냅스터'에 대해 폐쇄 판결을 내려 음악 사이트들의 저작권 침해에 제

동을 걸었고 우리나라가 뒤따라 간 셈이 됐다. 불법 복사 제품의 범람과 무차별적인 파일의 다운, 파일의 공짜 서비스 등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가로막고 새로운 콘텐츠의 생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저열한 해적행위임은 명약관화하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공표되고 지식산업의 이름으로 단죄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미국영화협회(MPAA)가 최근 불법 복제 영화파일을 인터넷 사용자끼리 주고받는 파일 공유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면서 '영화판 냅스터 파문'도 예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음악 파일에 이어 영화파일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서서히 불거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복제된 개봉영화를 감상하는 인구가 1000여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이트들이 폐쇄 명령을 받더라도 서버를 외국으로 옮겨 단속을 원천적으로 피한다든지 사이트 추적 프로그램을 따돌릴 수 있는 방어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제 재망을 빠져나간다면 법적 대응도 무의미해 질 수 밖에 없다. 무료 서비스로 수익도 내지 못하는 이들 사이트가 자살 행위와도 같은 무료 파일 서비스를 원천적으로 중단하지 않는한 정보사회는 그 내용이 점점 쓰레기로 덮여질 수 밖에 없음을 자명하다. 여기에 편승에 공짜 소프트웨어를 즐기는 네티즌도 결국은 쓰레기 같은 콘텐츠만 향유할 뿐이라는 사실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사업자를 포함해 모든 네티즌들도 정정당당해지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PPER**